

위기청소년 21.5% “자해 시도해봤다”

여가부 2024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10명 중 3명 일상생활 불가 호소 여성, 남성에 비해 우울감 더해 학업문제 3배 ↑, 학폭도 19.7% 코로나 후 교육격차 더 크게 느껴

가정이나 학업,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 중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21.5%는 자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29일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조사로, 2021년 첫 조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 9세~18세 청소년 46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20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33.0%는 지난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조사(26.2%) 대비 6.8%p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 40.5%, 남 25.6%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을 더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을 시도해본 적 있는 위기청소년은 8.2%로 2021년(9.9%) 대비 1.7%p 감소했지만, 자해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1.5%로 같은 시기 대비 2.8%p 증가했다.

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는 ‘심리불안’이 37.3%로 가장 높았다. 가족 간의 갈등(27.0%), 학업문제(15.0%),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8.0%), 미래에 대한 불안(7.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문제를 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로 꼽은 응답은 2021년(4.7%)과 비교해 10.3%p나 증가했다.

은둔 경험에 있는 위기청소년은 25.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46.7%였으나, 2024년에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냈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미만’이 6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19.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6.9%), 6개월 이상~1년(4.1%) 순으로 조사됐다.

가출 경험에 대한 응답 역시 2021년(32.6%) 대비 4.9%p 줄어든 27.7%로 조사됐다. 집을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이 6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유로운 생활(34.3%), 가정폭력(26.3%) 순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생활공간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쉼터에서 지냈다는 응답은 30.2%로 2021년 대비 2.7%p 증가했다.

위기청소년의 17.3%는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가해지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높았다. 친구·선후배 등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응

답은 28.1%였다.

또 19.7%는 친구·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15.9%) 대비 3.8%p 증가한 수치다.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도 6.3%로 2021년과 비교해 2.0%p 증가했다.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2021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체 폭력의 경우 44.4%에서 42.9%로 감소했고, 언어폭력도 46.0%에서 44.6%로 줄었다.

위기청소년들의 90.4%는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도움을 청할 주요 대상은 부모님 또는 보호자라는 응답이 73.0%로 이전 조사와 비교해 8.8%p 증가했고, 친구·선후배라는 응답도 70.8%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제공(77.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지원(74.9%), 직업교육훈련·자격증취득(74.6%), 건강검진 제공(74.1%), 각종 질병 치료(72.1%),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70.1%)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업무 내용이나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2021년(40.2%) 대비 7.8%p 증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상담1388’과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자살·자해 및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통해 교육부·복지부·경찰청·병무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위기청소년 발굴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 “이번 조사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 고위험으로 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주거·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뉴스

조선대병원 이준영 교수, 대한골절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KOTIC 2025, 제51차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29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위 경골 골절에서 안정적인 골절고정방법 치료전략의 생역학적 연구’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연구는 정강이뼈(원위 경골)가 심하게 골절 시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생역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골절 고정법을 분석하고 비교한 것으로, 향후 하지 골절 및 외상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선대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최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료와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KOTIC 2025, 제51차 학술대회)에서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준영(오른쪽) 교수가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한편, 이 교수는 족부 질환 및 하지 골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현재 조선대병원 정형외과장과 대한골절학회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프로축구 광주FC의 팀 주치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과거에도 대한골절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대표기관 선정

2027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전남대학교병원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전남권역대표기관으로 선정돼 고위험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게 됐다.

2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수행 협력체계를 선정한 결과, 전남 권역에서는 유일하게 전남대병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분만전문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

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9개 권역 중 전남권역에서 대표기관으로 선정, 12개 지역 분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모자의료 진료협력 대표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인건비, 진료 수당 등 연간 성과에 따라 최대 16억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국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하 전남대병원 모자의료센터장은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원과 진료가 지역 분만 전문 병원들과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광주·전남지역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